

環境保護 관리 國策 사업으로

水質淨化技術 개발단 구성, 중점추진

2천년까지 2,460억 投入 … 環境 개선 기술 개발

盧泰愚대통령은 8월22일 청와대에서 李祥羲과기처 장관으로부터 環境 오염방지를 위한 기술개발추진대책을 보고받고 『科技處는 水質 오염문제를 포함한 環境 전반에 걸친 오염방지 기술개발계획을 관계기관과의 협의·수립하고 이를 國策 연구 개발과제로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盧대통령은 『최근 우리 국토와 생활환경이 급속히 오염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環境 관련 시설 및 제도를 개선하고 단속도 강화하는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말하고 『과학기술차원에서 이 문제에 동참하여 관련기술을 개발·보급·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李과기처 장관은 이날 보고를 통해 環境 오염의 근원적인 방지를 위해 90년부터 2천년까지 2천4백6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하여 단기적으로 수질오염원 차단기술을 개발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질오염방지, 토양정화, 폐기물처리 및 대기정화기술등 環境 개선 관련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해 깨끗하고 맑은 環境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점부는 날로 심각해지는 水質汚染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사업들을 전근기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李장관은 또 環境 오염방지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水質淨化技術開發團」을 구성, 수질종합관리기술을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環境 보호관리기술개발을 國策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李장관은 이어 수질종합관리 기술개발사업단은 오염도가 날로 심각해지는 주요 상수원인 팔당댐, 소양댐, 대청댐등 3개지역을 우선 선정해 수질오염원인 하수분뇨산업 및 축산폐수를 정화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그 시범사업 결과를 전국의 상수원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科技處는 90년부터 2천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1단계사업기간(90~92년)에는 ▲기존처리시설의 효율제고와 고도처리 기술개발 ▲오염물질처리균주

와 수처리제개발 ▲수질예측모델과 오염측정기술 개발등을 추진하고, 2단계기간(93~95년)중엔 ▲고도정화기술의 응용 ▲수처리제와 고효성균주의 실용화 ▲수질관리 모니터링기술 개발 ▲부영영화방지 기술개발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96년부터 2천년까지 마지막 3단계기간에는 고도정화기술 및 시설의 산업화를 이뤄 수출단계에 진입하는 한편 수질종합관리시스템 개발사업을 완료하게 된다.

尖端 광물소재 워크숍

動資研, 11월 3일 개최

韓國動力資源 연구소(소장 金志同)는 오는 11월3일 忠南 유성에 위치한 리베라호텔 대연회장에서 제1회 尖端 광물소재 및 분석워크숍을 개최한다.

産·學·研 상호 新技術의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열리게 될 이번 워크숍에서는 자원활성분야에서 「국내회토류 광물(중사)선광연구」등 7편, 신소재 및 분석분야에서 「고순도 금속제조」등 6편의 논문이 발표될 예정이다.

尖端技術개발 本格추진

오는 96년까지 3조2천억원 投資

科技處, 新素材등 10大분야 중점지원

科學技術處는 오는 96년까지 총3조2천억원의 연구비를 투입, 첨단기술개발 연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과기처는 8월29일 이같은 내용의 「첨단기술개발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경제기획원 상공부등 관계부처와 협의후 앞으로 범부처적으로 구성될 첨단기술산업발전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정부계획으로 최종 확정키로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최근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수출부진, 경기침체, 통상 및 기술보호압력등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오는 96년까지 세계 10위권의 첨단기술보유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아래 메카트로닉스, 신소재 등 10개 연구분야에서 55개 연구과제를 도출, 국책사업으로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 계획안에 포함된 첨단기술개발분야는 ▲정보산업기술 ▲메카트로닉스 ▲신소재 ▲생명공학 ▲정밀화학 ▲신에너지 ▲우주·항공·해양 ▲21세기 교통시스템 ▲첨단의료·환경 ▲첨단원천요소기술 등 10개 분야이다.

과기처는 첨단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



업추진체제로 産·學·研 모두

가 참여하는 국책연구개발사업단체제를 확립하고 첨단기술개발지원을 위한 조세·금융 등 각종 지원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 첨단기술개발에 필수적인 핵심연구개발두뇌 2만3천명등 충수요인력 26만4천명을 양성하고 필요시 국가적차원에서 가용전문인력의 공동활용제도를 도입, 운용할 계획이다.

과기처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첨단기술개발사업추진 특별조치법」(가칭)을 立法化하는 한편 조세 및 금융등 각종 지원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韓國, 技能올림픽 8連霸

英國대회, 21개국出戰 - 金11개차지

제30회 國際技能올림픽에서 韓國은 金11, 銀2, 銅3개의 메달을 따내 종합우승을 차지, 8連霸의 위업을 차지했다.

미국, 영국, 일본, 서독 등 21개국 4백8명이 참가한 가운데 8월29일부터 9월2일까지 5일간 영국 버밍햄에서 열린 이 대회에서 우리나라는 34개 직종 가운데 32개 직종에 출전, 기계조립부문의 朴柱興씨(21. 금성전기)가 우승한 것을 비롯, 모두 11개의 금메달을 획득해 8년연속우승의 대기록을 창출하고 「技能 韓國」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2위는 금7, 은4, 동3개를 따낸 臺灣이 차지했고 3위는 오

스트리아(금5), 4위는 西獨(금4)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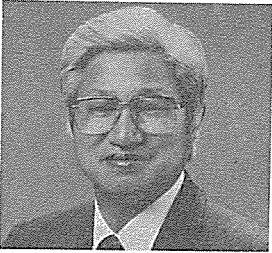
韓國의 금메달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 ▲朴柱興(21·기계조립·금성전기)
- ▲李載烈(22·프레스금형·금성전기)
- ▲鄭鎬淳(22·정밀기기제작·현대자동차)
- ▲孫大畷(19·기계제도·현대자동차)
- ▲禹正澤(20·선반·기아산업)
- ▲張榮德(20·밀링·대한항공)
- ▲朴信俊(19·철골구조·현대중공업)
- ▲朴雨相(22·가스용접·현대중공업)
- ▲朴永俊(21·라디오TV수리·알앤디시스템)
- ▲朴權檀(22·동력배선·금성계전)
- ▲金汶洙(22·금은세공·바니세공)

美·日·加의 科學技術協力 강화

협력협정체결 · 共同研究 수행키로

李祥羲과기처장관, 3개국 巡訪



◇李祥羲장관

李祥羲과기처장관은 13일간 미국·일본·캐나다등 3개국을 순방, 각국의 과학기술장관 및 관계자들을 만나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 및 국제공동연구등 선진국과의 국제협력증진방안을 협의하고 8월 14일 귀국했다.

李장관은 이번 순방에서 미국정부와 지난해 10월 폐기된 韓·美과학기술협정을 빠른 시일내에 부활시킬 것에 합의했으며 캐나다정부와는 양국간의 과학기술협정을 체결하는데 합의했다. 또한 일본정부와는 韓·日기초과학공동위원회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방미기간중 李장관은 국무성 발돌로뮤 안보지원 및 과학기술담당차관과 만나 韓·美과학기술협정체결문제에 합의했으며 국가원자력규제위원회 카위원장, 국립과학재단 브로크이사장 및 청소년우주협회 잭 앤더슨이사장등을 차례로 만나 양국간 과학기술현안 및

원자력분야 주요관심사를 협의하고 北韓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협정」 서명을 촉구하고 常溫핵융합 공동연구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李장관은 또 일본에서 나카무라 日本과기기술청장관과 에너지, 원자력, 해양, 환경, 신

소재, 기초과학등 韓·日 양국간의 공동관심사를 폭넓게 협의하고 韓·日기초과학공동위원회 설립 및 신소재육성평가센터 설립지원등 상호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캐나다 하비앙드레 산업과기기술성장관과 공동선언문을 발표, 韓·加과기기술협정의 조속한 체결, 원자력분야 기술협력확대등 양국간의 국제협력증진을 약속하고 정식협정은 올 10월 하비앙드레 산업과기기술성장관 방한시 체결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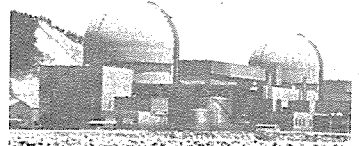
原電 放射線관리 집중조사

原子力안전대책반, 靈光·古里 두原電 점검

政府는 原子力안전대책반(위원장 崔永煥과기처차관)은 8월28일부터 9월9일까지 2주간에 걸쳐 최근 지역주민의 방사능 被爆여부로 논란을 빚었던 靈光과 古里 두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과기처 원자력국장을 단장으로 과기처 관계관 및 원자력안전센터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단은 검사총괄반, 운영보수점검반, 방사선안전관리점검반의 3개반으로 편성, 古里 및 靈光원전의 집중 점검 외에도 蔚津, 月城원전과 韓電본사 및 관계업체에 대한 검사도 실시했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관계서류 점검, 현장확인, 작업종사자 등 관계자 면담등을 통하여 原



◇영광原電전경

電운영체계 및 절차상 제도적, 구조적 문제점을 도출하여 근본적인 개선방안 강구에 역점을 두고 점검을 실시했으며 특히 작업종사자의 피폭관리등 방사선 관리분야에 대한 집중조사도 실시했다.

科技處는 이번 점검결과를 9월20일까지 종합, 이를 토대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관한 종합대책을 9월말까지는 수립할 계획이다.

'89國內外 학술회의 秋季워크숍

10월 11~13일 호텔 롯데월드서 開催

「生命科學」 등 5개분과서 最新논문 59편 발표

韓國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89國內外한국과학기술자 학술회의 秋季워크숍을 오는 10월11~13일 3일간 잠실 호텔 롯데월드에서 개최한다.

國內外 한국과학기술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國家특정연구 과제와 연계한 최신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관련정보를 교환하는 이번 워크숍은 「정보·통신」「기계」「생명과학」「약제」「재료과학」등 5개분과로 나뉘어 진행된다.

정보·통신분과는 「종합통신망, 기계분과는 「CAD/CAM」「CIM, 생명과학분과는 「체의수정, 약제분과는 「신물질을 이용한 약물전달시스템」「신약개발, 재료과학분과는 「Engineering Ceramics」등을 과제로 하여 美 Ohio주립대 金 문현교수등 미국, 캐나다, 독일 등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외 과학기술자 19명과 국내과학기술자 40명등 59명이 최신 연구논문 발표와 학술토론을 벌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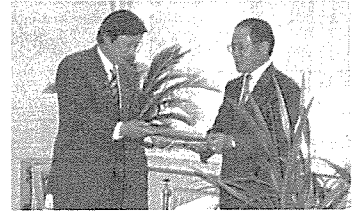
韓國화낙, 永久 창조회원가입
鄭부회장, 회원패 수여

韓國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鄭助英상임부회장은 8월29일 永久 창조회원으로 가입한 韓國화낙(주) 金昞源 대표이사

사장에게 科總회원패를 전달했다.(사진)

慶南 昌原市에 소재한 한국화낙(주)는 수치제어장치를 비

롯하여 산업용 로봇, Wire cut방전기공기, PLC의 제조 및 판매등을 목적으로 지난 78년 설립된 회사이다.



兵役特例法, 大學에도 확대해야

科總, 병역특례제도 개정안에 대한 建議

韓國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9월2일 연구요원 兵役特例制度 개정안에 대한 건의서를 國防部(兵務廳)를 비롯한 관계요로에 제출했다.

科總은 이 건의서에서 『우리 과학기술인들은 이번 국방부(병무청)에서 마련한 병역특례제도 개정안에 대하여 國民

皆兵主義에 입각한 병역의무형평성의 원칙과 정신에는 전폭적으로 찬동하지만 과학기술진흥과 고급인력양성 및 확보가 國력신장은 물론 國방력증강과 직결된다는 견지에서 병역특례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처해 달라』고 강조했다.

1. 兵役의무의 特例제도에 관한 特別措置法(案) 제8조(연구요원의 특례) 제1항의 “兵役特例審議委員會가 선정한 연구기관에...”를 “兵役特例심의위원회가 선정한 교육및 연구기관에...”로 변경함으로써 대학(부설연구소 포함)에 몸을 담고 있는 다수의 碩士 이상 학위취득자가 특례를 적용받아 본 조항이 뜻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동법 제8조의 목적이 “학문과 기술의 연구기회 부여”에 있으므로 徵集연기를 碩士과정 학생에게는 현행대로 만 26세까지, 博士학위 과정생에게는 만 29세까지 연장함으로써 중단없이 학문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본 개정안이 발효되기 이전에 이미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자들이 불이익과 동요를 방지하기 위한 경과조치로서, 본 개정안의 시행이전에 입학한 학생들의 졸업연도까지는 현행 석사장교 제도를 존속시켜 주시고 특히 그 선발인원을 현수준으로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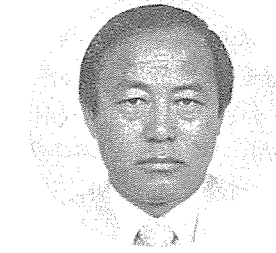
事務次長에 李傑三실장 任命

科總, 事務處직원 人事이동

韓國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9월1일 李傑三기획관리실장을 사무차장으로 승진, 발령하는등 사무처직원의 일부 人事이동을 단행했다.

人事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획과장 劉成垓(진흥부장·원로과학기술자문단사무국장) ▲총무과장 李旭桓(기획과장) ▲진흥과장 李鍾安(



〈李傑三사무차장〉

총무과장) ▲기획관리실 예산담당 尹虎植(진흥부 진흥담당) ▲진흥부 진흥담당 安光模(기

획관리실 예산담당) ▲진흥부 협력담당 및 원로과학기술자문단 사무국겸직 金正會(진흥부 협력담당)

◇新任사무차장 略歷

▲1966년 서울大文理大졸업 ▲73년 캐나다 워털루大 경영대학원 수료 ▲74년 서울大 경영대학원졸업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역(75년) ▲태국방콕소재 국제상공회의소 亞太委사무차장(77년) ▲효성물산 해외지점장(84년) ▲科總기획관리실장(84년)

科總회원단체 水災義捐金 추가모금현황

韓國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8월31일 회원단체로부터 추가 접수된 水災義捐金 2백17만원을 内外經濟신문사에 기탁했

다. 이로써 科總은 임직원 및 산 하회원단체로부터 모금한 6백93만3천80원의 수재의연금을

세차례에 걸쳐 언론기관에 전달했다.

추가접수된 수재의연금 모금 현황은 다음과 같다.

〈89. 8. 30현재, 단위 : 원〉

회 원 단 체 명	금 액	회 원 단 체 명	금 액	회 원 단 체 명	금 액
대한체질인류학회	50,000	대한측량협회	50,000	대한비뇨기과학회	50,000
대한예방의학회	50,000	한국통신학회	50,000	한국경영과학회	50,000
한국향해학회	30,000	대한신경과학회	50,000	한국폐기물학회	50,000
한국의류학회	30,000	한국화학공학회	50,000	한국원예학회	100,000
대한의용생체공학회	50,000	한국농업기계학회	50,000	대한산부인과학회	50,000
대한법의학회	50,000	한국정밀공학회	30,000	대한응집학회	50,000
한국수산학회	100,000	대한임상병리학회	30,000	IUGG 한국위원회	50,000
한국잠사학회	50,000	대한교통학회	30,000	한국생화학회	50,000
한국응용곤충학회	100,000	한국대기보전학회	30,000	한국환경돌연변이발암원학회	30,000
한국산업미생물학회	40,000	한국박용기관학회	30,000	한국독성학회	30,000
대한생리학회	50,000	대한기계학회	50,000	한국토양비료학회	100,000
한국기술사회	50,000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50,000	대한수의학회	50,000
대한수학회	50,000	한국정보과학회	50,000	과총 회장, 상임부회장	
한국생약학회	50,000	대한약학회	50,000	유기원이사	
대한광산지질학회	30,000	대한불임학회	50,000		
한국식물분류학회	30,000	대한가정학회	50,000	합	계
					2,170,000

衛星 추적·수신시스템 開發

科技院「노아」가 보낸 氣象상황 수신 成功

국내 기술진이 개발한 「위성 추적·수신시스템」이 8월29일 오후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시험운전에 성공함으로써 오는 92년말로 예정된 國產 과학위성 발사에 필요한 중요한 기반 기술이 확보된 것으로 평가됐다.

韓國과학기술원 羅正雄·尹明重교수팀이 과기처 특정연구과제로 지난 85년부터 4년에 걸쳐 개발한 이 위성추적 수신시스템은 미국의 기상위성 노아11호가 우리나라 상공을 통과한 이날 오후 1시 6분부터 17분까지, 오후2시 48분부터 58분까지 두차례에 걸쳐 위성의 방향을 정확히 추적하고 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를 수신했다.

과기원 구내언덕(해발 50m, 동경 1백27도2분51초, 북위 37도35분23초)에 위치한 이 장치는 추적레이다와 지상수신기의 원리를 종합한 것으로 크게 세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위성에서 오는 매우 약한 신호를 포착하고 전파가 오는 방향을 찾아내는 수신시스템과 움직이는 위성체를 계속 추적하는 제어시스템, 그리고 위성의 궤도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안테나의 고도각과 방위각을 계산하고 명령을 내리는 컴퓨터의 소프트웨어·프로그램본야등.

이 시스템의 개발로 우리나라 상공을 통과하는 수많은 위성들-첩보위성, 원격탐사위성, 기상위성, 통신위성, 과학위성 등-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게 됐으며, 92년말 발사예정인 한국형 소형과학위성 코셋트(KORSAT) 개발에 진일보하게 됐다.

無公害農藥 개발

農振廳 崔庸哲 박사팀

살균효과가 뛰어나고 잔류毒性이나 생물에 대한 藥害가 전혀 없는 無公害農藥이 우리나라

에서 처음으로 개발됐다.

농업진흥청 崔庸哲박사팀은 8월31일 4년여의 연구끝에 개발에 성공한 고추疫病방제용 농약을 「AC-1 농약」으로 명명, 국제특허를 출원했다.

崔박사팀이 개발한 이 농약은 고추疫病에 감염된 고추밭에서 살아남은 고추를 수집, 뿌리에 붙어있는 1만여종의 미생물들을 추출해 실험을 거듭한 결과 疫病菌에 탁월한 방제효과를 보인 拮抗세균(특정미생물의 번식을 억제하는 세균)만을 모아 만든 것이다.

이번에 개발된 농약은 세계적으로 길항세균을 이용한 생물농약을 실용화한 것이 5~6중에 불과한 정도에서 이룩한 첨단분야란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물의 끓는 溫度 99.97°C

國際도량형委, 90년 1월부터 수정권고

내년 1월1일부터 물의 끓는 온도가 섭씨 1백도가 아닌 섭씨 99.97도로 수정된다.

이것은 국제도량형위원회(CIPM)가 최근 기전력과 저항 및 온도에 관련된 측정표준을 수정, 세계 각 회원국에 90년 1월1일부터 적용토록 권고해옴에 따른 것.

이와함께 기전력 및 전위차의 단위인 볼트(V)는 9.8PPM, 전기저항의 단위인 오옴(Ω)은 0.7PPM, 전류의 단위인 암페

어(A)는 9.1PPM, 전력의 단위 와트(W)가 18.9PPM씩 각각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모든 정밀기기는 올해안에 보정을 해야만 한다.

韓國표준연구소는 이를 위해 현재 단위변경에 따른 재교정대상, 교정값의 보정방법, 새로운 단위의 유지요령등을 상세히 설명한 지침서를 만들어 전국관계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敎學本處 · 研究處 등 두기로

科技院, 잠정 組織改編 단행



◇科技院전경

韓國科學技術院(원장 李相洙)은 7월24일 최근 연구부문의 분리·독립에 따른 연구부문조직의 폐쇄 및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잠정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개편에서는 碩·博士과정 敎學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원장산하에 교학본처를 두고 교학본처에는 14개 학과 1개전공과 교무처, 학생처, 연구처, 과학도서관을 두었으며 연구중심대학원으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해 새로이 연구처를 신설했다.

이 연구처에는 새로이 연구개발실, 연구기획과, 기술지원과를 신설하고 기존교무처 산하에 있던 연학과를 연구처로 옮겼으며 과학도서관에는 도서관과를 신설했다.

또한 행정업무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원장 직속으로 행정처를 신설하여 기획실, 행정실을 두었고 행정부서의 실, 과명칭도 바꾸었다. 따라서 기존의 학사기획실이 기획실로, 학

사지원실이 행정실로, 학사기획과는 기획예산과로, 정보처리과는 경영정보과, 학사지원1과는 총무과로, 학사지원2과는 자재과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관리과를 신설했다.

주요 補職人事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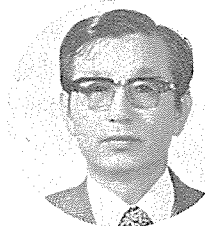
科技院은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주요보직자에 대한 人事를 7월24일부로 실시했다.

신설된 교학본처장에는 李源國부원장이 겸임토록 하였으며 교무처장겸 연구처장에는 李在英재료공학과 교수, 행정

처장 직무대행겸 기획실장에는 李斗衡학사기획실장, 연구개발실장에는 金東勳행정조정담당실장, 행정실장에는 裴瓊珪학사지원실장이 각각 임명됐다.

제4 대 科技大 학장에

趙炳夏교수 任命



韓國과학기술원은 제4대 과학기술대학 학장에 趙炳夏박사(63·한국과학기술원 물리학과교수)를 9월1일부로 임명했다.

도핑검사기술 中國에 이전 추진

KIST, 내년 亞州경기때 檢査 협조키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도핑콘트롤센터는 88서울올림픽때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도핑검사기술을 90년 中國에서 열리는 北京아시아경기대회에 이전해 주기로 했다.

도핑콘트롤센터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약물검사교육을 위탁받아 아시아 국가올림픽위원회의 약물검사담당관들을 상대로 지난 8월21일부터 24일까지 교육을 실시했는데 이번 교육에 참가한 중국도핑센터의 앙티안리소장과

朴鍾世소장 사이에 이같은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양국정부의 허가를 받는대로 정식 기술협조협정을 체결키로 한 것.

도핑콘트롤센터는 IOC로부터 위탁받은 아시아지역 도핑검사교육외에 정부의 해외기술공여사업의 일환으로 중국, 필리핀, 태국, 시에라리온,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등 9개국 開途國의 화학·약학·생명과 학자들을 초청해 生體物質내의 생리활성물질 분석에 관한 워크숍을 9월12일까지 열었다.

宇宙科學者協 결성

美서在美한국인 모여

在美한국인 宇宙과학기술자 협회가 최근 美國 워싱턴 D. C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정식, 발족했다.

在美한인우주과학기술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비롯하여 학술 및 기술교류, 韓美우주과학기술 및 산업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결성된 이 협회는 초대회장에 황보한박사, 부회장에 송영두·고의곤씨등 임원진을 선출했다. 초대회장으로 선임된 황보 한박사는 『L. A등 각 NASA센터가 있는 지역에 지부 및 분회를 결성, 전국적으로 회원을 확보토록하고 한국내 우주과학기술단체 및 관련기관과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서 우선 총람발간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自然史박물관 設置

과천 서울大公園내

서울시는 과천시 서울대공원 내에 動·植物의 변천사를 한눈에 관찰할 수 있는 自然史박물관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종합안내소건물 2층에 4~5백평 규모의 전시실을 마련, 박제골격등 동물표본과 각종 식물표본을 지역별·시대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전시할 계획이다.

또 전시실은 항온·항습시설을 갖춰 전시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이달내로 박물관설치 기본계획을 세운뒤 3개년계획으로 표본수집등 사업을 추진하여 늦어도 92년쯤에는 박물관을 개장토록 할 작정이다.

生物工學 발전전략 모색

農業生物공학심포지움서

서울대 농대 부속 농업개발연구소는 9월22일 서울대 농대 대형강의실에서 농업생물공학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서울대 허문회교수의 「농업생물공학

을 이용한 제2의 녹색혁명」이란 제목으로 주제발표에 이어 「유전자조작에 의한 식물형질 전환」 「조직배양에 의한 작물 및 임목의 육종」 「인공종자」 「생물공학적기법을 이용한 가축의 생산성향상」 「살충미생물의 형질전환」 「식물조직배양에 의한 유용물질생산」 「발효미생물 균주개량 및 유용물질생산」 「발효미생물 균주개량 및 유용물질생산」 「유용물질 생산을 위한 생물반응기의 개발」등 8편의 학술발표가 있는데 다음 「21세기를 향한 생물공학 발전전략」에 관하여 종합토론을 벌인다.

科技院 첫 정년퇴임교수 나와

朴松培(전기과)·李炳昊(핵공학과) 두교수

韓國과학기술원이 설립된지 19년만에 처음으로 정년퇴임교수가 나왔다.

전기전자공학과와 朴松培교수와 핵공학과와 李炳昊교수가 만 65세로 8월31일 과기원대강당에서 정년퇴임식을 갖고 연구실을 떠나게 된 것.

朴교수는 서울대공대를 졸업하고 68년 美미네소타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서울대 조교수, 美오레건주립대조교수등을 거쳐 73년 KAIST와 인연을 맺어 16년간 봉직해 왔다.

朴교수는 그동안 박사 21명, 석사 1백4명을 지도·배출하면서 3편의 저서와 논문 1백70

여편, 특허 10건, 연구보고서 29편등을 발표했다.

한편 李炳昊교수는 70년 런던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후 서울대 주임교수, 국방과학연구소 연구부장을 거쳐 75년 부터 과기원에서 봉직했다.

李교수는 그동안 박사 10명, 석사 51명을 지도·배출했으며, 3편의 저서와 논문 1백50여편, 연구보고서 3건등을 출간했다.

科技院은 이들 두 정년퇴임교수를 명예교수로 추대, 앞으로 5년간 전공분야에 관한 강의 및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과학기술계뉴스



대한화학회

大韓化學會(회장 金泰麟)는 국내 대학, 연구소, 산업체등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급 化學人力의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는 化學人力總覽을 올해안에 발간할 계획이다.

이 총람에는 개인별 출생연도, 소속기관, 직위는 물론 담당업무, 세부전공분야, 주요연구개발업적, 주요 연구논문등을 수록하여 국내 화학인의 人的사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동학회는 이미 전국 104개 대학의 화학과, 공업화학과를 비롯한 화학관련학과 435개소와 10개 정부출연연구소, 12개 국립기관, 그리고 144개의 화학관련기업체를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 2천4백여명에 달하는 化學人名단을 입수하고 이들에게 설문지를 보내 개인별 자료를 접수중에 있다.

원자력산업회의 방사성동위원소협회

韓國原子力産業會議(회장 安秉華)는 韓國放射性同位元素協會(회장 林瑑圭)와 공동으로 「放射線 安全관리교육」을

9월20일 韓國原産 教育장에서 실시한다.

날로 확대되는 방사선 이용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방법과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및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업무능률의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교육에서는 원자력안전센터의 권석근방사성동위원소 안전관리실장이 방사선방어개론, 방사선·방사능시설의 기본설계 및 안전취급, 방사선측정 및 감시기술, 방사선안전관리규제에 관하여 강의를 하게 된다.

한국축산학회

7월15일 충북대학교에서 개최된 韓國畜産學會 금년도 정기총회 및 제45회 학술발표회에서 朴英一교수(서울대농대)가 제10대 회장에 취임했다.

신임朴회장의 임기는 90년 6월30일까지이다.

한편 학술발표회에선 육종, 번식, 영양사양, 사료, 초지, 가공등 7개분야에서 「산탄기에 있어 항원의 주입농도와 항체가에 대한 연구」등 63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동학회는 또 8월19일에는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세계축산학회회장인 R. Blair 박사(캐나다 British Columbia대 교수)를 초청,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에서 Blair 박사는 「육용계의 급사증후군에 대한 영양학적 고찰」에 대해서, 세

계 축산학회부회장인 韓仁圭 박사(서울대농대학장)는 「돼지체내에 있어 아미노산의 이용율」에 대하여 강연했다.

대한수학회

大韓數學會(회장 尹在漢)는 내년 7월 中國 北京에서 열리는 제31회 國際數學올림피아드(IMO)에 파견할 대표를 선발하기 위한 韓國數學올림피아드를 9월10일 전국 13개 대학에서 개최한다.

중·고교 1, 2학년 수준의 대수(순열조합) 해석(미적분제외) 기하학분야의 주관식 문제로 30~50명의 학생을 선발한 다음 겨울방학중 과학기술대학에서 특별교육을 실시한 뒤 최종대표로 6명을 선발한다.

대한안과학회

大韓眼科學會(회장 韓景植)는 오는 10월6~7 양일간 워커히호텔에서 제63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선 「굴절이상 교정을 위한 각막수술」을 주제로한 심포지움과 「취의 망막발생의 형태학적연구-전자현미경소견에 관한 검토」에 관한 숙제보고가 있게 된다.

또한 美 텍사스 기술대 John J. Alpar 교수의 초청강연과 「포도막」에 관한 연수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사총회원단체 9월 학술행사계획 일정

단 체 명	대 표 자	행 사 명	일 자	장 소
대한기계학회	손명환	에너지 및 동력공학부문 학술강연회	9. 2	한국동력자원연구소
대한전자공학회	이충웅	음향 및 신호처리연구회 학술발표회	"	서울대학교
대한전자공학회	이충웅	통신연구회 전자교환연구회 합동 학술발표회	"	한국과학기술원
한국폐기물학회	이승무	Waste Reutilization and Resource Recovery	9. 4~ 6	올림픽호텔
한국토양비료학회	박천서	'90년대 비료산업발전과 비료 정책방향에 관한 심포지움	9. 8~ 9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전자공학회	이충웅	전자계산연구회 학술발표회	9. 9	한양대학교
한국창조공학회	박화술	산업발전과 창조성개발	9.11	부산전문대학
한국과학교육학회	김창식	과학 CAI 세미나	9.20	한국교육개발원
대한의용생체공학회	김은영	창립기념심포지움	9.21~22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식품과학회	권태완	녹차세미나	9.22	롯데호텔
한국통신학회	강창언	통신용 직접회로워크숍	9.22~23	현대전자(주)연구소
한국지구과학회	윤홍식	총회 및 학술발표회	9.23~24	육군사관학교
대한전자공학회	이충웅	회로 및 시스템연구회 학술발표회	9.23	아주대학교
한국정보과학회	이철희	P.L정기총회 및 논문발표회	9.23	서울대학교
한국자동차공학회	조경국	학술강연회	9.29	자동차공업회관
대한법의학회	김만달	전국법의학세미나	9.29~30	서울대학병원
대한임상검사정도 관리학회	김재식	Coagulation Test 워크숍	9.29	연세대학교
한국통신학회	강창언	위성통신 및 전파기술세미나	"	세종문화회관
한국통신학회	강창언	신호처리합동 학술발표회	9.30	서울대학교

한국윤활학회

韓國潤滑學會(회장 文卓珍)
는 8월30일 축산회관에서 제4
회 윤활강습회를 개최했다.

潤滑基油의 제조 정제과정과
물리적 특성, 윤활기유 및 첨

가제의 응용, 기유다첨가제의
관계등이 폭넓게 다루어진 이
번 강습회에서의 연계 및 연사
는 다음과 같다.

- ▲윤활기유의 물리학적 특성 (김종호/화학연 책임연구원)
- ▲윤활기유 제조공정 및 제품 특성 (손정민/극동정유<주>

- 기술부장) ▲윤활기유의 제조 및 정제과정(이명우/쌍용정유<주> 윤활생산부)
- ▲윤활기유 및 첨가제의 응용(최용수/한국과학기술원 선임연구원)
- ▲윤활기유와 그리이스의 관계 (권오관/한국과학기술원 기계 및 전자, 물리연구부장)

과학기술계뉴스

방사성동위원소협회

韓國放射性同位元素協會(회장 林瑑圭)는 최근 방사선취급분야 관련 종합문제집을 펴냈다.

방사선취급분야의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나 현장근무 종사자에게 필요한 참고서 역할을 하게 될 이 책은 원자력기초이론, 방사선취급기술기초, 방사선장해방어기초, 방사선장해방어 관계법령등의 내용으로 꾸며져 있는데 각 장마다 알기쉽게 이론을 설명한 후 관련문제를 풀어보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이 책은 원자력연수원과 방사성동위원소협회의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집필하였으며 방사선 안전관리 전문가인 林瑑圭박사가 책임감수하였다.

식물학회·생태학회

韓國植物學會(회장 李仁圭)와 韓國生態學會(회장 金俊鎬)는 8월18~19 양일간 서울대학교에서 식물과 토양에 관한 심포지움 및 워크숍을 공동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움에선 「식물과 토양수분(박인근/충북대)」 「Resin Bag을 이용한 토양의 영양염류이용도 측정방법(문형태/공주사대)」 「식물군집에 있어서 물질의 생산과 분해(장남기/서울대)」 「토양환경 구

배에 따른 식물의 형태 및 생산의 변이(이희선/서원대)」 「식물의 근권 및 토양의 질소 고정과 순환(송승달/경북대)」 「토양중 Phenolic Compound의 동태(길봉섭/원광대)」 등 6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또한 워크숍에선 「토양유기물의 무기화와 순환」 「토양의 영양염류 이용도측정」 「강산성 토양의 황분석」 등 3개 연제가 발표됐다.

한국음향학회

韓國音響學會(회장 殷鍾官)는 8월28~29일 양일간 한국과학기술원 대강당에서 음성통신 및 신호처리워크숍을 개최했다.

「Man-Machine Interface 기술을 주제로 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日本 東京대학 Hiroya Fujisaki교수의 「Overview of Japanese Efforts Toward an Advanced Man-Machine Interface Through Spoken Language」, 서울대 김진영·성평 모씨가 공동연구한 「한국어 단모음의 연구」 등 모두 18편의 연제가 발표됐다.

대한금속학회

大韓金屬學會(회장 金鶴起)는 8월23일 서울대공대 세미나실에서 독일 Max-Planck 금속연구소 책임연구원이며 Stut-

gart 공대 대우교수인 Ferdinand Sommer박사를 초청,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에서 F. Sommer 박사는 「희토류 금속합금의 열역학특성」에 대하여 강연했다.

동학회는 이어 25일까지 3일간 금년도 열처리기술강습회를 개최했다.

이 강습회에선 연세대 崔鍾述교수, 서울대 李厚喆교수, 고대 산업과학대학원 洪鍾徽원장, 한양대 孟琬在교수, 서울대 羅亨用교수, 동아대 李相允교수, 東宇열처리공업<주> 高橋博차장, 三源공업<주> 韓相旭사장, 三千里열처리<주> 金觀哲사장 등 9명의 강사가 열처리기술 전반에 걸쳐 강의했다.

대한산업공학회

大韓産業工學會(회장 元震喜)는 오는 11월11일 수원의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에서 추계학술논문 발표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발표회에선 생산관리 설비배치 및 자동창고 R & D관리 인간공학 인공지능, 의사결정 및 지원 응용·통계 및 확률 최적화기법 CAD/CAM/CIM 및 관련분야 컴퓨터응용·품질관리 기타 산업공학관련분야 논문 다수가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동학회는 이번 학술대회에 발표할 논문 초록을 9월 20일까지 접수하고 있다.

한국조경학회

韓國造景學會(회장 孫昌求)는 8월4일 강원대학교에서 금년도 임시총회 및 학술논문발표회를 개최하고 논문 13편을 발표했다.

특히 논문발표회에선 「연령별 한국인의 조경디자인 양식의 선호에 대한 연구」「도시와 농촌어린이의 이상적인 주거경관의 인지에 관한 연구」「환경관리계획을 위한 환경구조 변동의 분석, 평가에 관한 연구」「계량적 레크레이션 방향모델과 공간체계」등 13편의 최신연구논문이 발표됐으며 5일에는 춘천문화관에 대한 학술답사를 실시했다.

한편 동학회는 9월22일에 경북구 지하철전시장에서 제6회 韓國造景작품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각 대학 및 전문대학생과 기업체에서 출품하는 58개작품이 선을 보이게 된다.

한국통신학회

韓國通信學會(회장 康昌彦) 금년도 하계종합학술대회가 8월11~12 양일간 부산 東亞대학교에서 열렸다.

이번 학술대회에선 申相瑛 명예회장의 「한국통신학회의 어제와 오늘」, 전기연구소 安宇熙소장의 「EMI와 EMC의 현황 및 동향」등 두편의 특별강

연과 「음성통신 및 광통신」 「안테나 및 전자전파」 「데이터 및 영상통신」 「반도체 및 회로시스템」 「통신시스템, 전자교환기」 「컴퓨터 네트워크 및 제어」 등 6개분야에서 「한국어 음성인식을 위한 특징 파라미터 추출회로의 설계」 등 76편의 연구논문발표가 있었다.

동학회는 또 18일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미래통신망과 광통신」을 주제로 하계특별기술세미나를 개최하고 「통신망의 발전과 광기술(강민호/ETRI)」 등 7편의 연제를 발표했다.

대한기계학회

大韓機械學會(회장 孫明煥)는 9월2일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자료관회의실에서 에너지 및 동력공학부문 학술강연회를 개최했다.

「액체분무와 미립화 및 연소」를 주제로 한 이번 강연회에서는 「액체미립화 및 분무특성(이상용/한국과학기술원)」 「디젤분무의 주위유체유동(조일영/同志社大)」 「Emission Characteristics of a Lean Premixed Combustor (Osamu Kawaguchi/ KEIO Univ)」 등 3편의 학술강연과 「회전분무식 버너의 분무입경에 관한 실험적연구」 등 5편의 논문발표가 있었다.

동학회는 이에 앞서 8월26일에는 연세대에서 동력학 및 제

어부문 학술강연회를 개최했다.

대한토질공학회

大韓土質工學會 金翔圭회장을 비롯한 12명의 회원들이 8월14일부터 18일까지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열린 제12차 國際토질 및 기초공학회의에 참가하고 8월하순 귀국했다.

금년초 國際土質工學會에 가입한 동학회는 본회의 이틀 전에 있었던 회원국회의에도 초청을 받아 김상규회장과 홍성원박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 토질 및 기초연구실장)가 참석했는데 이 회원국회의에서는 UN이 주관하는 자연재해방지 10개년계획에의 참여등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차기회원국회의를 1991년 이탈리아의 프로렌스에서 개최키로 결정했다.

또한 차기회장엔 캐나다 Alberta 대학교의 Morgenstern 교수가 선출됐는데 Morgenstern 교수는 1994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제13차회의 때까지 4년간 회장직을 맡게 된다.

한편 이번 대회에 참가하고 돌아온 金翔圭회장은 「이번 국제대회는 한국토질공학회가 국제토질공학회에 가입한 후 처음으로 참가하는 회의니 만큼 참관하는 것으로 그쳤으나 앞으로는 연구논문발표는 물론 한국이 차기대회의 개최지로 유치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총회원단체 9월 학술행사계획 일정

단 체 명	대 표 자	행 사 명	일 자	장 소
대한기계학회	손명환	에너지 및 동력공학부문 학술강연회	9. 2	한국동력자원연구소
대한전자공학회	이충웅	음향 및 신호처리연구회 학술발표회	"	서울대학교
대한전자공학회	이충웅	통신연구회 전자교환연구회 합동 학술발표회	"	한국과학기술원
한국폐기물학회	이승무	Waste Reutilization and Resource Recovery	9. 4~ 6	올림픽호텔
한국토양비료학회	박천서	'90년대 비료산업발전과 비료 정책방향에 관한 심포지움	9. 8~ 9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전자공학회	이충웅	전자계산연구회 학술발표회	9. 9	한양대학교
한국창조공학회	박화술	산업발전과 창조성개발	9.11	부산전문대학
한국과학교육학회	김창식	과학 CAI 세미나	9.20	한국교육개발원
대한의용생체공학회	김은영	창립기념심포지움	9.21~22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식품과학회	권태완	녹차세미나	9.22	롯데호텔
한국통신학회	강창언	통신용 직접회로워크숍	9.22~23	현대전자(주)연구소
한국지구과학회	윤홍식	총회 및 학술발표회	9.23~24	육군사관학교
대한전자공학회	이충웅	회로 및 시스템연구회 학술발표회	9.23	아주대학교
한국정보과학회	이철희	P.L정기총회 및 논문발표회	9.23	서울대학교
한국자동차공학회	조경국	학술강연회	9.29	자동차공업회관
대한법의학회	김만달	전국법의학세미나	9.29~30	서울대학병원
대한임상검사정도 관리학회	김재식	Coagulation Test 워크숍	9.29	연세대학교
한국통신학회	강창언	위성통신 및 전파기술세미나	"	세종문화회관
한국통신학회	강창언	신호처리합동 학술발표회	9.30	서울대학교

한국윤활학회

韓國潤滑學會(회장 文卓珍)
는 8월30일 축산회관에서 제4
회 윤활강습회를 개최했다.

潤滑基油의 제조 정제과정과
물리적 특성, 윤활기유 및 첨

가제의 응용, 기유다첨가제의
관계등이 폭넓게 다루어진 이
번 강습회에서 연제 및 연사
는 다음과 같다.

- ▲윤활기유의 물리학적 특성 (김종호/화학연 책임연구원)
- ▲윤활기유 제조공정 및 제품 특성 (손정민/극동정유<주>

- 기술부장) ▲윤활기유의 제조 및 정제과정(이명우/쌍용정유<주> 윤활생산부)
- ▲윤활기유 및 첨가제의 응용(최용수/한국과학기술원 선임연구원)
- ▲윤활기유와 그리이스의 관계 (권오관/한국과학기술원 기계 및 전자, 물리연구부장)

과학기술계뉴스

방사성동위원소협회

韓國放射性同位元素協會(회장 林瑑圭)는 최근 방사선취급분야 관련 종합문제집을 펴냈다.

방사선취급분야의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나 현장근무 종사자에게 필요한 참고서 역할을 하게 될 이 책은 원자력기초이론, 방사선취급기술기초, 방사선장해방어기초, 방사선장해방어 관계법령등의 내용으로 꾸며져 있는데 각 장마다 알기쉽게 이론을 설명한 후 관련문제를 풀어보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이 책은 원자력연수원과 방사성동위원소협회의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집필하였으며 방사선 안전관리 전문가인 林瑑圭 박사가 책임감수하였다.

식물학회·생태학회

韓國植物學會(회장 李仁圭)와 韓國生態學會(회장 金俊鎬)는 8월18~19 양일간 서울대학교에서 식물과 토양에 관한 심포지움 및 워크숍을 공동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움에선 「식물과 토양수분(박인근/충북대)」 「Resin Bag을 이용한 토양의 영양염류이용도 측정방법(문형태/공주사대)」 「식물군집에 있어서 물질의 생산과 분해(장남기/서울대)」 「토양환경 구

배에 따른 식물의 형태 및 생산의 변이(이희선/서원대)」 「식물의 근권 및 토양의 질소 고정과 순환(송승달/경북대)」 「토양중 Phenolic Compound의 동태(길봉섭/원광대)」 등 6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또한 워크숍에선 「토양유기물의 무기화와 순환」 「토양의 영양염류 이용도측정」 「강산성 토양의 황분석」 등 3개 연제가 발표됐다.

한국음향학회

韓國音響學會(회장 殷鍾官)는 8월28~29일 양일간 한국과학기술원 대강당에서 음성통신 및 신호처리워크숍을 개최했다.

「Man-Machine Interface 기술을 주제로 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日本 東京대학 Hiroya Fujisaki 교수의 「Overview of Japanese Efforts Toward an Advanced Man-Machine Interface Through Spoken Language」, 서울대 김진영·성평 모씨가 공동연구한 「한국어 단모음의 연구」 등 모두 18편의 연제가 발표됐다.

대한금속학회

大韓金屬學會(회장 金鶴起)는 8월23일 서울대공대 세미나실에서 독일 Max-Planck 금속연구소 책임연구원이며 Stut-

gart 공대 대우교수인 Ferdinand Sommer 박사를 초청,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에서 F. Sommer 박사는 「희토류 금속합금의 열역학특성」에 대하여 강연했다.

동학회는 이어 25일까지 3일간 금년도 열처리기술강습회를 개최했다.

이 강습회에선 연세대 崔鍾述 교수, 서울대 李厚喆 교수, 고대 산업과학대학원 洪鍾徽 원장, 한양대 孟琬在 교수, 서울대 羅亨用 교수, 동아대 李相允 교수, 東宇열처리공업<주> 高橋博 차장, 三源공업<주> 韓相旭 사장, 三千里열처리<주> 金觀哲 사장 등 9명의 강사가 열처리기술 전반에 걸쳐 강의했다.

대한산업공학회

大韓産業工學會(회장 元震喜)는 오는 11월11일 수원의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에서 추계 학술논문 발표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발표회에선 생산관리 설비배치 및 자동창고 R & D 관리 인간공학 인공지능, 의사결정 및 지원 응용·통계 및 확률 최적화기법 CAD / CAM / CIM 및 관련분야 컴퓨터응용 품질관리 기타 산업공학관련분야 논문 다수가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동학회는 이번 학술대회에 발표할 논문 초록을 9월 20일까지 접수하고 있다.